

지 상 법 석

‘차별없는 사랑’ 원력 갖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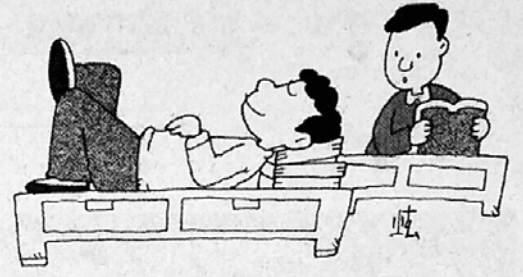
“이기심·욕망이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지계의 실천만이 본래면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만들어 내는 첨단생명공학의 시대입니다. 분별의 오류를 영원히 넘어선 선정의 수습으로 얻어진 금강반야의 대지해광명이 그 어느때보다도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삼학을 수습하여 무상정등정각을 얻으신 모든 부처님은 반드시 중생을 제도합니다. 중생이 없는 부처님은 마음만 있고 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 있어서 자비를 강조함은 이타의 선행이나 세간적 구제의 방편 때문만은 아닙니다. 깨달음의 완성은 반드시 자비를 수반합니다. 석가세존께서 이루신 정각의 내용 연기법은 자비의 실천이 왜 자제의 완성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분신입니다. 이렇게 나아가 사방 삼세 삼천대천세계를 바라다 보면 자비는 단순한 종교의 덕목이 아니고 실존의 필연적인 공존의 법칙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요즈음 강조되고 있는 환경운동 또한 반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괴로 인한 해독이 인간에게 위해하게 되자 비로소 자연을 보호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환경이라는 말 또한 인간중심을 부르짖던 서구의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중심이란 개념이 바로 인간의 존재를 광동하게 보지않는 어휘이며 환경이란 말 또한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경전에서는 인간이란 개념보다 육취(六趣:지옥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의 중독과 정열을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불교는 오랜 수행의 전통과 인심교화의 역사를 간직해왔습니다. 수행의 공덕과 교화의 원력으로 민족정신사를 장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꼬리를 무는 대형 사고, 무작위 인명살상, 과(過)소비, 그에 따른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불안등 우리는 요즘 국민과 국가가 상처받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란 결국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하는 욕망의 집단적 포화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구 쏟아낸 우리들의 거친

으로 욕망이 기초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명이 발전한 만큼 그 밑으로 감춰졌던 잘못된 과정과 욕망의 결과 또한 거대한 중량으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몇 개의 카드나 패스포드를 갖고 다닙니다. 이제 온 국민이 필수로 지녀야 할 패스포드가 있습니다. 바로 일체생명이 존엄하다는 자각입니다. 존엄의 자각을 기초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다음의 과제는 정신의 청정영역(淸淨淨域)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향유하고자 하는 맑은 환경은 인간의 청정한 의식과 비례합니다. 즉 인간 마음의 청정이 환경의 청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도 일심(一心)이 청정하면 일체가 청정하게 되고 국토 또한 청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을 위협하는 현상계의 두려움은 근원적으로 그것을 싫어하는 인간 자신의 욕망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은 정화하는 정신의 청정영역이 넓게 분포해 있으면 거친 생존은 반조(還潮)와 참회의 의례를 거쳐 존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양행진 諸法無我 諸行無常

자란. 이는 우리 주변의 물체 뿐이 아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우주의 모든 천체들도 예외없이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고 있다. 기령 항성의 경

慈悲喜捨로 산 생명 돌봄은 불성을 기르는 일 중독된 욕망 정화·청정심 회복에 종교인 나서야

이것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저것이 있게 되며 저것이 없으므로 인하여 이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此有故彼有 彼無故此無) 이것이 일어나므로 해서 저것이 일어나게 되고 저것이 멀하므로 해서 이것이 멀하게 된다. (此起故彼起 彼滅故此滅) 모든 존재와 현상은 상의상존 불가분의 관계속에 놓여져 있다는 연기의 법칙은 진보한 오늘날의 인류종교 사상사에서도 보편적이면서 탁월한 세계관으로 조망받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신심의 기초가 되는 연기의 법칙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일심은 사방세계와 삼세로 통해 있습니다. 법신의 체에서 바라보면 이웃은 나의 소중한 부분이며 나 또한 이웃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상의상존하는 자연의 분신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만이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의 분신인 자연을 상해하고 그 아픔을 되돌려 받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초목을 선별하여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 초목을 적서준다는 마음마저도 내지 않는다 하였으니 자연의 내용을 부처님의 무언자비에 비유하기도 한 것입니다. 행성은 지구의 분신이며, 은하계는 또한

아귀 축성 아수라 인간 천) 사생(四生:胎卵濕化)이란 말로 중생의 범주를 광동하게 다룹니다. 인간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오온(五蘊)의 취합을 강조함으로 해서 오히려 불완전한 실존의 상황을 깨닫게 합니다. 나아가 본래성불(本來成佛)을 천명함에 있어서는 일체중생개유불성(一切眾生皆有佛性)이라 하여 생명의 본질적 자각을 인간간의 것으로 자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얼마나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중생 사랑입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무언자비를 생존의 법칙으로 삼습니다. 환경영양이 우리의 먹물과 음식을 더럽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동체대비의 자각으로 유정과 무정을 차별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보리심을 발하여 원력을 세우고 삼학을 수습하여 원행을 실행하는 무언자비의 불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아끼고 보호하면 그 상처는 아낀 만큼 정직하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권세와 명예 그리고 아집은 욕망의 수위가 높아 올라오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시키고 번뇌를 전염시키는 사회환경의 오염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환경보호는 인간중심의 외침 동체대비를 생존법칙 삼아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면 그 상처는 정직하게 회복됩니다”

욕망이 되돌아 와서 그 원인을 묻는 빠저린 인과상응(因果相應)의 현상입니다. 일체생명에 대한 존엄함의 자각이 배제된 무지한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근원적으로 욕망의 범주에 속합니다.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일로부터 기업을 경영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등 모든 생각과 행위의 근본은 일체생명이 존엄하다는 자각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존엄의 자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생존이 본질적으로 개체적 이기심과 욕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현대산사회의 또한 그러한 개인적 욕구의 성취를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

업하고 순수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 있어 개종(改宗)은 종교를 바꾸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종이란 근본을 버리는 일입니다. 보리심과 무언자비(無緣慈)를 망각할 때 불제자는 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을 잃는 것은 진리를 등지는 일이며 불심을 끊는 일이니 중생이 평명을 잃는 일입니다. 중생이 평명을 잃은 세상에 개인의 해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해탈의 몸은 대신(大身)이어서 모든 중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무언자비만이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주만물 고정된 실체없이 항상 변화 ‘나의 존재’ 해답 오직 연기법만이 제시

도 마찬가지로이다. 태어난 이후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을 만들어 왔다. 어버이에게서 몸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좀 더 따지고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인연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그 어떤 면을 살펴 보아도 ‘나’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다른 존재와 구분하여 정의해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다른 모든 요소와의 관계로서만 존재할 뿐이며, 그런 요소가 변하게 되면 ‘나’ 역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를 내어거서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생명체가 아닌 다른 사물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물체도 영원 불변의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가령 눈앞에 놓여 있는 책상의 경우, 그 쓰임새가 책을 놓고 공부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평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드러누워 잠자는 것으로 쓸 수도 있고 단순히 물건을 쌓아 두는 것으로 쓸 수도 있다. 이처럼 모든 물체는 생명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불변의 실체를 가지고 있

를 이루고, 그들이 모여 원자를 이룬다. 원자가 모여 분자를 이루고, 그 분자들이 모여 생명체를 포함한 갖가지 물체를 이룬다. 그런 것들이 모여 천체를 이루고 천체가 모여 우리의 우주가 된다. 이렇듯 여러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실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불변하는 고정된 자성(自性)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으므로 부처님은 이를 제법무아(諸法無我)라고 하셨다. 범어로 Anatman인 무아는 곧 불멸하는 실체인 atman과 같은 것은 없다는 가르침이다. 이렇듯 현상에 드러나는 모든 것이 무아이니 제행(諸行)이 무상(無常)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제법과 제행이란 현상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물을 일컫는 말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제법이 우주 만물을 공간상으로 파악한 것이라면 제행은 이를 시간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체 만유는 공간적으로 무아요, 시간적으로 무상이니, 이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알게 한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버려처럼 단번에 지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소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집착도 변민도 없는 무상도의 세계, 구름 넘어 저 멀리, 깨달음의 밤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강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생광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일한 인생의 지침서! 인문 432번 21,7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깊은 인성을 살고 싶은 사람!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매우는 사람!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소 라즈니쉬! 그는 갈츠가 무성한 법구경이라는 밭을 완전히 갈아엎는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타마 붓다의 신대로 돌아간다. 스승의 입술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금 전 저울린 불교기치된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정의 감동이 우리를 압도한다.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 112 가지 명상비법 무상제 안역공개 인생을 무덤덤하게 살 것인가? 황홀하게 살 것인가? 무엇이 영혼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왜 내어놓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버린 미야마의 의식과 인연의 삶의 태도에서 어떤 깨어남이!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나나 바이라비' 힌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활역본/

임제 RINZAI 조주 JOSHU 마조 MATZU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법구경 2권 / 라진 21,700원

탄트라 비전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이연학 옮김 2권 / 라진 21,7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신동4기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